

韓 '대외신용 위험' 6년 만에 최고치... 채권시장 살얼음판

레고랜드 사태發 자금시장 경색
수출 감소 전환 등 성장세 약화

CDS 프리미엄 75.61bp 집계
지난해 말 대비 3배 이상 급등
이달 빅스텝 땀 채권시장 위험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이어 흥국생명이 콜옵션을 미행사하면서 자금시장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가 약화하면서다.

CDS는 대출이나 채권 등 투자에 존재하는 부도, 파산, 지급불이행 등의 신용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 파생상품이다. 통상 CDS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발행국이나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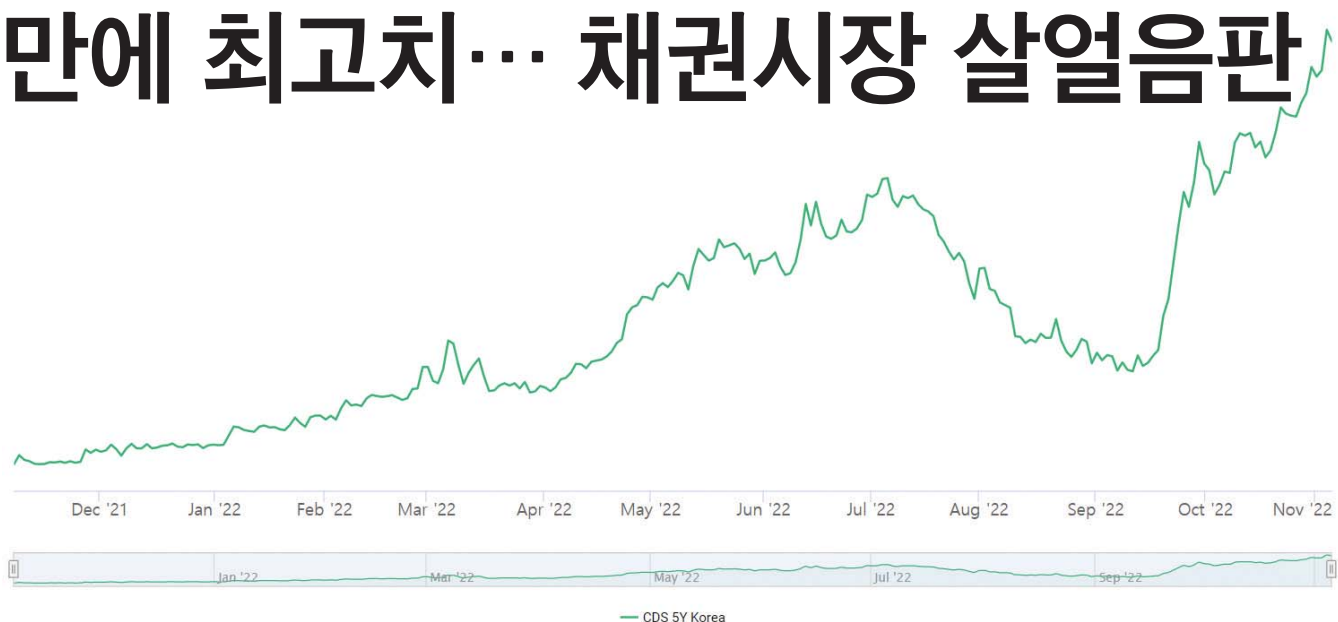
7일 글로벌 채권 정보제공업체 씨본즈(Cbonds)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5년물의 CDS프리미엄이 75.61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1bp)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급등했으며, 지난 2016년 2월 12일(78.70bp)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5년물 한국 CDS프리미엄 57bp보다도 높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 지표는 650bp까지 오른 바 있다. 당시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CDS 급등 요인으로 레고랜드 발 자금 경색과 수출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를 꼽았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레고랜드 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국내 신용경색 리스크의 도화선 역할을 했지만, 이 외에도 국내 펀더멘탈 약화로 신용경색 리스크의 또



5년물 CDS 프리미엄. /씨본즈

다른 요인"이라며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약화와 함께 국내 수출 경기 약화가 국내경제 펀더멘탈 우려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국내 수출 증가율은 2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5.7%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 둔화가 본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박 연구원은 "물론 국내 CDS프리미엄 급등에도 불구하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 위기 당시수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신용위기를 언급할 단계는 아

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각종 신용경색 관련 지표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 재확인으로 채권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최소 0.25%포인트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방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

락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채권시장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단행되는 경우 자금 경색 우려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정책 당국의 지원 조치로 안정을 찾았던 채권시장 변동성은 재차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차전지 실적 기대감에 관련 ETF도 날개

美 IRA 수혜, 3분기 호실적 등 영향
2차전지 관련 ETF 최고 56% 상승
중간선거 결과가 바이든 정책 변수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국내 증시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2차전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 이어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2차전지 관련 ETF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4일까지 2차전지 관련 ETF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TIGER 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 ETF는 56.64% 오르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ETF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2차전지 대표기업 위주로 담고 있다. TIGER KRX2차전지K-뉴딜 ETF와 TIGER 2차전지 테마는 각각 26.10%, 21.15% 올랐다.

KODEX 2차전지산업과 KBSTAR 2차전지액티브도 각각 25.61%, 19.5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29% 오른 것과 비교해 보면 2차전지 관련 ETF의 급등이 훨씬 두드러진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약세를 보인 국내 증시와 달리 2차전지 관련주와 ETF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3분기 호실적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2차전지 업종의 상대적 주가 강세는 IRA 수혜 기대감에 따른 것이며, 해당 모멘텀은 앞으로도 업종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대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 또한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권사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고 있다.

전창현 연구원은 "내년에는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도 친환경 전환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강화되며 견조한 전기차(EV) 및 배터리 시장 성장을 예상한다"면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이번 주에 치러지는 미 중간선거 결과가 바이든 정부의 기존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2차전지 관련주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화당이 양원에서 다수당이 될 시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RA, 증세 등 주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자동차,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도 국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美 IRA 법안 숨은 수혜주 재생에너지 고성장 기대감

株라쿨라의 종목
신성이엔지

하반기 RE 본격 성장 예고
현대엔솔과 OEM 계약 체결
美 태양광 시장 간접 진출
클린룸 수요 확대도 긍정적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김수민 연구원은 '신성이엔지'에 대해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인한 태양광 시장 고성장 수혜를 전망한다"라며 "2차전지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클린룸 전방 산업의 확대 추세와 신규 수주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7일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1996년에 코스피에 상장됐으며 주요 사업은 RE(재생에너지), CE(클린환경)이다.

RE부문의 경우 매출 80% 이상을 태양광 모듈 생산에서 발생하며 배터리카, 인버터 등을 판매 및 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IRA 시행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에 따른 고성장 수혜가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RE사업부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생산하는 모듈은 국내 매출이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태양광 모듈 OEM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에 간접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 2분기까지 모듈 생산이 증가할 예정이며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유럽 내 수요 대응에 집

중하고 있어 하반기 추가 계약 가능성도 높다"라며 OEM 계약 규모를 연간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다만 RE사업부 매출의 80% 이상이 모듈에서 발생하는 만큼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익률 훼손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폴리실리콘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RE사업부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연구원은 "올해 세 차례의 모듈 가격 인상을 통해 폴리실리콘 가격 변동은 판가에 반영해 작년 대비 영업 상황이 좋아졌으며, 중국의 폴리실리콘 공급 강화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가격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요 사업인 CE의 주력 상품인 클린룸의 수요 확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극한된 클린룸 전방 산업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코로나 백신, 의약품 등의 바이오산업 내 클린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며 "전기차 시장 활성화로 2차전지 생산 설비 내 드라이룸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리서치알음은 신성이엔지의 2022년 매출액 6498억원, 영업이익 325억원을 전망했다. 이는 작년 대비 각각 42.9%, 43.4%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적정주가는 2635원으로 제시하면서,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영석 기자 ysl@

DL이앤씨, 1조6000억 규모 '부산 축진3구역' 수주

단지명에 '아크로 라로체' 제안
최고 60층 18개동 대단지 추진

DL이앤씨가 부산 '축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 축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부산시 진구 범전동 일원에 있는 축진3구역은 지난 2020년 부산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 1호'로 지정된 곳이다. 사업지 바로 옆에는 부산 최대 규모 공원인 부산시민공원이 위치했다. 총 공사금액은 1조6073억원이며,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DL이앤씨는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로체산(Lhotse)'의 의미를 더한 '아크로 라로체(ACRO Laroche)'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DL이앤씨는 축진3구역을 최고 60

층, 18개동, 총 3554가구와 그에 걸맞는 규모의 부대복리시설이 갖춰진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축진3구역은 올해 하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도시정비사업장 중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면서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총 4조 2317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